언어와 매체 EBS 수능특강
2024~2019학년도 6개년 모음

1. 음운 (정답 및 해설)

편집자 : 오르비 '인센디움'
해당 자료의 저작권은 EBS에게 있습니다.

01 언어

본문 52~56쪽

01 ③ 02 ② 03 ② 04 ③
05 ② 06 ③

01 최소 대립쌍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이마'와 '치마'는 단어를 구성하고 있는 분절 음운의 개수가 다르므로 최소 대립쌍을 이루지 못한다. '이마'는 'ㅣ', 'ㅁ', 'ㅏ'라는 3개의 음운으로, '치마'는 'ㅊ', 'ㅣ', 'ㅁ', 'ㅏ'라는 4개의 음운으로 구성되어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눈(目)[눈]'과 '눈(雪)[눈:]'은 비분절 음운인 장단만 차이 남으로써 그 뜻이 구별되는 단어의 짝이므로 최소 대립쌍에 해당한다.

② '마리'와 '머리'는 하나의 모음인 'ㅏ'과 'ㅓ'만 차이 남으로써 그 뜻이 구별되는 단어의 짝이므로 최소 대립쌍에 해당한다.

④ '하루'와 '나라'는 'ㅎ'과 'ㄴ', 'ㅜ'와 'ㅏ' 두 개의 음운이 서로 다르므로 최소 대립쌍을 이루지 못한다.

⑤ '키'와 '아이'는 'ㅋ'과 'ㅏ'가 각각 자음과 모음에 해당하여 대응하는 음운의 종류가 서로 다르므로 최소 대립쌍을 이루지 못한다.

02 음운의 이해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 '끝으로[끄트로]'는 표기 형태의 음절 유형은 '자음+모음+자음, 모음, 자음+모음'이고, 실제 발음상의 음절 유형은 '자음+모음, 자음+모음, 자음+모음'이어서 표기 형태가 실제 발음상의 음절 유형과 일치하지 않는 사례에 해당한다.

㉡ '쌓임에[싸이메]'는 표기 형태의 음절 유형은 '자음+모음+자음, 모음+자음, 모음'이고, 실제 발음상의 음절 유형은 '자음+모음, 모음, 자음+모음'이어서 표기 형태가 실제 발음상의 음절 유형과 일치하지 않는 사례에 해당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종이에[종이에]'는 표기 형태의 음절 유형은 '자음+모음+자음, 모음, 모음'이고, 실제 발음상의 음절 유형도 '자음+모음+자음, 모음, 모음'이어서 표기 형태가 실제 발음상의 음절 유형과 일치하는 사례에 해당한다.

㉣ '갈치를[갈치를]'은 표기 형태의 음절 유형은 '자음+모음+자음, 자음+모음, 자음+모음+자음'이고, 실제 발음상의 음절 유형도 '자음+모음+자음, 자음+모음, 자음+모음+자음'이어서 표기 형태가 실제 발음상의 음절 유형과 일치하는 사례에 해당한다.

03 국어의 자음 체계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ㄱ, ㄲ, ㅇ, ㅋ}, {ㄴ, ㄷ, ㄸ, ㄹ, ㅅ, ㅆ, ㅌ}, {ㅁ, ㅂ, ㅃ, ㅍ}, {ㅈ, ㅉ, ㅊ}, {ㅎ}은 차례대로 연구개음, 치조음, 양순음, 경구개음, 후음에 해당하는 자음을 묶은 것으로 조음 위치에 따른 자음 분류에 해당한다. 가령 연구개음 {ㄱ, ㄲ, ㅇ, ㅋ} 내에 파열음과 비음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따로 분류하지 않았다. 따라서 '성준'은 국어의 19개 자음을 대상으로 조음 방법은 기준으로 적용하지 않고 조음 위치만을 기준으로 하여 묶었음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ㄱ, ㄲ, ㄷ, ㄸ, ㅂ, ㅃ, ㅅ, ㅆ, ㅈ, ㅉ, ㅊ, ㅋ, ㅌ, ㅍ, ㅎ}, {ㄴ, ㄹ, ㅁ, ㅇ}은 각각 장애음과 공명음에 해당하는 자음을 묶은 것이다. {ㄱ, ㄲ, ㄷ, ㄸ, ㅂ, ㅃ, ㅅ, ㅆ, ㅈ, ㅉ, ㅊ, ㅋ, ㅌ, ㅍ, ㅎ}과 {ㄴ, ㄹ, ㅁ, ㅇ}은 같은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을 지니는 것끼리 묶여 있지 않으므로, '보람'이 국어의 19개 자음을 같은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을 지니는 것끼리 묶었다고 볼 수 없다.

③ {ㄱ, ㄷ, ㅂ, ㅈ}, {ㄲ, ㄸ, ㅃ, ㅉ}, {ㅋ, ㅌ, ㅍ, ㅊ}은 차례대로 파열음, 파찰음들 중 평음, 경음, 격음에 해당하는 자음을 묶은 것이다. {ㄱ, ㄷ, ㅂ, ㅈ}, {ㄲ, ㄸ, ㅃ, ㅉ}, {ㅋ, ㅌ, ㅍ, ㅊ}은 모두 발음할 때 일어나는 공기의 방해 정도가 큰 자음에 해당하므로, '수지'가 발음할 때 일어나는 공기의 방해 정도가 약한 자음을 대상으로 묶었다고 볼 수 없다.

④ {ㄱ, ㄲ, ㄷ, ㄸ, ㅂ, ㅃ, ㅋ, ㅌ, ㅍ}, {ㅈ, ㅉ, ㅊ}, {ㅅ, ㅆ, ㅎ}은 차례대로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에 해당하는 자음을 묶은 것으로, 가령 {ㄱ, ㄲ, ㄷ, ㄸ, ㅂ, ㅃ, ㅋ, ㅌ, ㅍ} 내에 조음 위치가 다른 연구개음, 치조음, 양순음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따로 분류하지 않았다. 따라서 '연경'이 같은 조음 위치를 지니는 것끼리 묶었다고 볼 수 없다.

⑤ {ㄴ, ㅁ, ㅇ}, {ㄹ}은 각각 비음과 유음에 해당하는 자음을 묶은 것이다. {ㄴ, ㅁ, ㅇ}, {ㄹ}은 파열음, 파찰음들 중 평음, 경음, 격음에 해당하는 자음을 묶은 것이 아니고 조음 방법을 적용하여 묶은 것이므로, '혁준'이 조음 방법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04 국어의 모음 체계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ㅖ'와 혀의 앞뒤 위치, 혀의 높낮이가 같으면서 입술 모양만 둥근 모음은 'ㅚ'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고모음인 'ㅡ'를 발음할 때보다 저모음인 'ㅏ'를 발음할 때 혀의 높이가 더 낮기 때문에 입이 보다 많이 벌어진다.

② 전설 모음인 'ㅚ'에서 후설 모음인 'ㅗ'로 발음을 바꿀 때는 혀의 최고점이 앞쪽인 경구개 부근에서 뒤쪽인 연구개 부근으로 옮겨 간다.
④ 중모음인 'ㅓ'와 'ㅗ'를 발음할 때는 혀의 높이가 고모음보다는 낮고 저모음보다는 높다.
⑤ 후설 원순 고모음인 'ㅜ'는 전설 평순 저모음인 'ㅐ'와는 세 가지 기준이 모두 다르고 후설 원순 중모음인 'ㅗ'와는 혀의 높낮이에서만 차이를 보이므로, 'ㅜ'와 'ㅐ'보다는 'ㅜ'와 'ㅗ'가 더 가까운 관계이다.

05 탈락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ㅋ- + -□서 → [커서]'는 용언 어간 'ㅋ-' 끝의 'ㅡ'가 '-어'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하는 'ㅡ' 탈락의 예이다. '나서- + -□도 → [나서도]'는 용언 어간 '나서-' 끝 모음 'ㅓ'와 어미의 첫 모음이 동일할 때 일어나는 동일 모음 탈락의 예이다. '견디- + -□야 → [견뎌야]'는 용언 어간 '견디-' 뒤에 '-어'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할 때, '견디-'의 단모음 'ㅣ'가 반모음 'j'로 교체되는 예이다. 따라서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음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ㅓ'이다.

06 교체, 탈락, 첨가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은 용언 어간 '싸우-' 끝의 'ㅜ'가 어미 '-어야' 앞에서 반모음 'w'로 교체된 것이고, [싸우어야]의 4음절이 [싸워야]의 3음절이 된 것에서 음절 수가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은 용언 어간 '담그-' 끝의 'ㅡ'가 어미 '-아' 앞에서 탈락한 것이다. 용언 어간의 끝 모음은 'ㅏ'가 아니라 'ㅡ'이므로, 동일 모음 탈락으로 볼 수 없다.
② ㉡은 용언 어간 '보이-'와 어미 '-어'가 결합할 때 용언 어간의 단모음 'ㅣ'가 반모음 'j'로 교체된 것이고, 음절 수는 줄어들었다.
④ ㉣은 용언 어간 '피-' 뒤에 오는 어미 '-어'에 반모음 'j'가 덧붙어 [여]로 발음된 것으로, 표준 발음으로 인정된다.
⑤ ㉤은 용언 어간 '아니-' 뒤에 오는 어미 '-오'에 반모음 'j'가 덧붙어 [요]로 발음된 것으로, 표준 발음으로 인정된다.

02 언어

본문 57~60쪽

01 ② 02 ④ 03 ① 04 ②
05 ② 06 ⑤

01 교체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 '같이'는 '같-'의 'ㅌ'이 접사 '-이'의 'ㅣ'와 결합하므로 구개음화가 적용되어 [가치]로 발음해야 한다.
ⓒ: '닫힌'은 '닫-'의 'ㄷ'이 접사 '-히-'의 'ㅣ'와 결합하므로 구개음화가 적용되어 [다친]으로 발음해야 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버티지(버티- + -지)'의 '티'는 'ㅌ'으로 끝나는 형태소가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결합한 것이 아니고 어간의 일부이므로 구개음화가 적용되는 환경이 아니다.
ⓓ: '끝인사(끝 + 인사)'의 '인사'는 형식 형태소가 아니므로 구개음화가 적용되는 환경이 아니다.

02 교체, 탈락, 첨가, 축약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읽고[일꼬]'는 교체(경음화) 및 탈락(자음군 단순화)이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한 개 줄었으나, '옮는[옴:는]'은 탈락(자음군 단순화)만 일어나고 교체는 일어나지 않는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붙임[부침]'은 교체(구개음화)가 한 번 일어났고, 음운의 개수는 변하지 않았다.
② '벽난로[병날로]'는 교체(비음화, 유음화)가 두 번 일어났고, 음운의 개수는 변하지 않았다.
③ '닭하고[다카고]'는 탈락(자음군 단순화) 및 축약(격음화)이 일어났고, 음운의 개수는 두 개 줄었다.
⑤ '늦여름[는녀름]'은 교체(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및 첨가('ㄴ' 첨가)가, '막일[망닐]'은 교체(비음화) 및 첨가('ㄴ' 첨가)가 일어났고, 음운의 개수는 각각 한 개 늘었다.

03 교체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닫는[단는]'은 선행하는 'ㄷ'이 조음 위치(치조음)는 동일하고 조음 방법만 비음으로 바뀐 [ㄴ]이 되는 것을, '밥 먹는다[밤멍는다]'는 선행하는 'ㅂ'이 조음 위치(양순음)는 동일하고 조음 방법만

비음으로 바뀐 [ㅁ]이 되는 것과 선행하는 'ㄱ'이 조음 위치(연구개음)는 동일하고 조음 방법만 비음으로 바뀐 [ㅇ]이 되는 것을, '신라[실라]'는 선행하는 'ㄴ'이 조음 위치(치조음)는 동일하고 조음 방법만 유음으로 바뀐 [ㄹ]이 되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후행하는 자음이 아니라 선행하는 자음이, 조음 방법은 바뀌고 조음 위치는 바뀌지 않는다.

③ 후행하는 자음의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은 바뀌지 않으며, 선행하는 자음은 조음 위치가 아니라 조음 방법만 바뀐다.

④ 선행하는 자음과 후행하는 자음 모두 조음 위치는 바뀌지 않는다.

⑤ 후행하는 자음이 아니라, 선행하는 자음의 조음 방법이 후행하는 자음의 조음 방법과 같아진다.

04 교체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묶자'가 [묵짜]로 발음되는 것은 음절 종성에 올 수 없는, 하나의 자음인 'ㄲ'이 'ㄱ'으로 바뀐 결과로, 음절 종성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가지만 올 수 있는 제약과 관련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삶'이 [삼:]으로 발음되는 것은 자음군 단순화의 결과로, 종성에 올 수 있는 자음의 최대 개수는 1개라는 제약과 관련된다.

③ '갚다'가 [갑따]로 발음되는 것은 음절 종성에 올 수 없는 자음인 'ㅍ'이 'ㅂ'으로 바뀐 결과로, 음절 종성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가지만 올 수 있는 제약과 관련된다.

④ '빚다가'가 [빋따가]로 발음되는 것은 음절 종성에 올 수 없는 자음인 'ㅈ'이 'ㄷ'으로 바뀐 결과로, 음절 종성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가지만 올 수 있는 제약과 관련된다.

⑤ '읊고'가 [읍꼬]로 발음되는 것은 자음군 단순화에 의해 'ㄹ'이 탈락하고 'ㅍ'은 'ㅂ'으로 바뀐 결과로, 종성에 올 수 있는 자음의 최대 개수는 1개라는 제약과 음절 종성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가지만 올 수 있는 제약 모두와 관련된다.

05 교체, 탈락, 축약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쌓는[싼는]'은 'ㅎ' 뒤에 'ㄴ'이 결합되는 경우 'ㅎ'이 [ㄴ]으로 발음되는 ㉠의 예이다. '싫어[시러]'는 'ㅎ'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어'가 결합되는 경우 'ㅎ'이 발음되지 않는 ㉡의 예이다. '닳지[달치]'는 'ㅎ' 뒤에 'ㅈ'이 결합되는 경우 뒤 음절 첫소리와 합쳐져서 [ㅊ]으로 발음되는 ㉢의 예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닳아[다라]', '많아[마:나]', '낳은[나은]'은 모두 'ㅎ'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되는 경우 'ㅎ'이 발음되지 않는 ㉡의 예에 해당한다.

③ '낳아[나아]'는 'ㅎ'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아'가 결합되는 경우 'ㅎ'이 발음되지 않는 ㉡의 예에, '쌓지[싸치]'와 '좋던[조:턴]'는 'ㅎ' 뒤에 'ㅈ', 'ㄷ'이 결합되는 경우 뒤 음절 첫소리와 합쳐져서 [ㅊ], [ㅌ]으로 발음되는 ㉢의 예에 해당한다.

④ '않은[아는]', '곪아[고라]'는 'ㅎ'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은', '-아'가 결합되는 경우 'ㅎ'이 발음되지 않는 ㉡의 예에, '않고[안코]'는 'ㅎ' 뒤에 'ㄱ'이 결합되는 경우 뒤 음절 첫소리와 합쳐져서 [ㅋ]으로 발음되는 ㉢의 예에 해당한다.

⑤ '좋네[존:네]'는 'ㅎ' 뒤에 'ㄴ'이 결합되는 경우 'ㅎ'이 [ㄴ]으로 발음되는 ㉠의 예에, '많고[만:코]'는 'ㅎ' 뒤에 'ㄱ'이 결합되는 경우 뒤 음절 첫소리와 합쳐져서 [ㅋ]으로 발음되는 ㉢의 예에, '쌓인[싸인]'은 'ㅎ'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접미사 '-이-'가 결합되는 경우 'ㅎ'이 발음되지 않는 ㉡의 예에 해당한다.

06 국어의 모음의 종류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표준 발음법 제5항의 '다만 4'는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의'와 조사 '의'를 단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의'의 첫음절의 '의'는 단어의 첫음절의 '의'에 해당하므로 이중 모음으로 발음해야 한다. 참고로, '의사의'의 표준 발음은 [의사의/의사에]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제4항의 [붙임]을 통해 '기회'의 'ㅚ'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로 '기회'의 표준 발음은 [기회/기훼]이다.

② 제5항의 '다만 1'을 통해 용언의 활용형 '가져'의 '져'는 [저]로 발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제5항의 '다만 2'를 통해 '예의'의 '예'는 [에]가 아니라 [예]로 발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제5항의 '다만 3'을 통해 '희망'의 '희'는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으므로 [히]로 발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언어 01 음운 ❶ 본문 52~55쪽

01 ⑤ 02 ④ 03 ④ 04 ⑤
05 ⑤ 06 ④

01 분절 음운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사과'는 모음으로 발음이 끝나기 때문에 조음 과정의 마지막에 공기의 흐름이 방해를 받지 않는다. 반면 '연꽃'은 자음으로 발음이 끝나기 때문에 조음 과정의 마지막에 공기의 흐름이 방해를 받는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연꽃'의 'ㅍ'은 자음이므로 모음과 결합해야만 음절을 이룰 수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② '사과'는 5개의 분절 음운으로 이루어져 있고, '연꽃'은 6개의 분절 음운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③ '사과'의 'ㅘ'는 반모음 'w'가 단모음 'ㅏ'와 결합한 것이고, '연꽃'의 'ㅕ'는 반모음 'j'가 단모음 'ㅓ'와 결합한 것이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④ '사과'의 'ㅅ'과 'ㄱ'은 자음이므로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이 조음 과정에서 방해를 받는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02 음절의 이해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삶과'는 [삼:과]로 발음된다. 이때 '삶'에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되어 [삼:]으로 발음되는데, 이는 음절 구조 제약 때문에 종성에 자음이 2개 오는 음절 유형은 현대 국어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에 들어가기에 적절한 내용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여자'를 발음할 때 '녀(女)'의 'ㄴ'이 탈락하는 것은 음절 초성에서 자음이 1개에서 0개로 바뀌는 변화이므로 ㉠에 들어가기에 적절한 내용이 아니다.

② '노인'을 발음할 때 '로(老)'의 'ㄹ'이 'ㄴ'으로 바뀌는 것은 음절의 개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므로 ㉠에 들어가기에 적절한 내용이 아니다.

③ '닭과'를 발음할 때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닥꽈]로 발음되는데, 'ㄱ'이 'ㄲ'으로 교체되는 것은 음절의 개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므로 음절 구조 제약과는 관계가 없다. 따라서 ㉠에 들어가기에 적절한 내용이 아니다.

⑤ '깎다'를 발음할 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 [깍따]로 발음되는데, 'ㄲ'이 'ㄱ'으로 교체되는 것은 음절의 개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므로 음절 구조 제약과는 관계가 없다. 따라서 ㉠에 들어가기에 적절한 내용이 아니다.

03 국어의 자음 체계, 모음 체계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가)에서 공기를 일단 막았다가 일시에 터뜨리면서 내는 자음은 파열음이고, 혀의 최고점이 입 뒤쪽에 놓이고 입술이 둥글게 모아지는 모음은 'ㅜ'와 'ㅗ'이다. 파열음과 'ㅜ, ㅗ'의 조합을 보이는 것은 '구', '두', '코'이다.

(나)에서 코로 공기를 내보내는 자음은 비음이고, 혀의 최고점이 입 뒤쪽 높은 지점에 위치하는 모음은 'ㅡ'와 'ㅜ'이다. 비음과 'ㅡ, ㅜ'의 조합을 보이는 것은 '누'와 '무'이다.

따라서 (가)와 (나)를 각각 충족하는 음절끼리 짝지어진 것은 '두'와 '무'이다.

04 비분절 음운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보기〉의 ㉤에서 발음 실태 조사 결과 장음을 단음으로 발음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장단이 비분절 음운으로서의 역할을 점차 잃어 가고 있다고 하였으므로 '소식[소식]'을 [소:식]으로 잘못 발음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보기〉의 ㉠에서 소리의 길고 짧은 차이로 단어의 의미를 변별하는 기능을 지닌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② 〈보기〉의 ㉡에서 장단은 표준 발음법에서 인정하는 현대 국어의 유일한 비분절 음운이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③ 〈보기〉의 ㉢에서 현대 국어의 특정 지역 방언에서는 장단이 비분절 음운으로 기능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④ 〈보기〉의 ㉣에서 국어의 장음은 단어의 첫음절에서만 실현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05 최소 대립쌍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소리'와 '오리'는 단어를 구성하는 음운의 개수가 같지 않으므로 최소 대립쌍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소리'는 4개의 음운 'ㅅ, ㅗ, ㄹ, ㅣ'로 구성되어 있으나, '오리'는 3개의

음운 'ㅗ, ㄹ, ㅣ'로 구성되어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공'과 '곰'은 종성에 오는 'ㅇ'과 'ㅁ'에 따라 단어의 의미가 달라지고 있으므로 최소 대립쌍의 예에 해당한다.
② '산'과 '선'은 중성에 오는 'ㅏ'와 'ㅓ'에 따라 단어의 의미가 달라지고 있으므로 최소 대립쌍의 예에 해당한다.
③ '고을'과 '노을'은 단어의 첫음절의 초성에 오는 'ㄱ'과 'ㄴ'에 따라 단어의 의미가 달라지고 있으므로 최소 대립쌍의 예에 해당한다.
④ '머리'와 '허리'는 단어의 첫음절의 초성에 오는 'ㅁ'과 'ㅎ'에 따라 단어의 의미가 달라지고 있으므로 최소 대립쌍의 예에 해당한다.

06 국어의 음운 변동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굳이'는 구개음화가 일어나 [구지]로 발음된다.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결합하는 경우에도 앞 형태소의 끝소리가 그대로 연음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식당에서[식땅에서]'의 '당'의 'ㅇ'은 뒤 형태소의 초성으로 옮겨 가지 않으므로 적절한 내용이다.
② '남은'은 [나믄]으로 발음되므로 적절한 내용이다.
③ '첫아이'는 [처다이]로 발음되므로 연음 전에 '첫'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먼저 적용되어 [첟]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내용이다.
⑤ '높이어'는 '높-(용언의 어간)+-이-(접미사)+-어(연결어미)'로 분석되며, [노피어/노피여]로 발음되므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지 않고 연음된다는 내용은 적절하다.

언어 02 음운 ❷

본문 56~59쪽

01 ⑤ 02 ③ 03 ④ 04 ⑤
05 ② 06 ②

01 음운의 발음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닫히다'는 '닫히다 → 다티다 → [다치다]'의 과정을 거쳐 발음된다. 'ㄷ'과 'ㅎ'이 결합하여 'ㅌ'으로 축약된 후 'ㅌ'이 'ㅣ' 앞에서 'ㅊ'으로 교체되므로 교체가 일어난 후 음운의 축약이 이루어진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에서는 'ㄴ' 첨가로 음운의 개수가 1개 늘어나고, ㉡에서는 자음군 단순화로 탈락, ㉢에서는 거센소리되기로 축약이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1개씩 줄어들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② ㉠에서는 비음화가 일어나므로 조음 방법이 바뀌는 교체가 일어나고, ㉢에서는 구개음화가 일어나므로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이 바뀌는 교체가 일어난다. 따라서 적절한 진술이다.
③ ㉠에서는 'ㄴ' 첨가가 일어나므로 음운의 첨가가 일어난다는 진술은 적절하고, ㉡에서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므로 음운의 탈락이 일어난다는 진술 또한 적절하다.
④ ㉡에서 일어나는 된소리되기는 용언의 어간이 'ㄴ'이나 'ㅁ'으로 끝날 때 일어나는 된소리되기이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02 국어의 음운 변동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ㅎ' 탈락은 'ㅎ' 받침으로 끝나는 용언의 어간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ㅎ'이 탈락하는 현상이다. '끓는'에서 'ㅎ'이 탈락하는 현상은 어미가 자음으로 시작하기에 이 현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음군 단순화에 해당한다. 따라서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넋'은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되어 [넉]으로 발음되므로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다.
② '사니'는 '살-+-니'에서 'ㄹ'이 'ㄴ'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한 것이므로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다.
④ '서서'는 '서-+-어서'에서 동일 모음 'ㅓ'가 탈락한 것이므로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다.

⑤ '모아라'는 '모으-+-아라'에서 'ㅡ'가 탈락한 것이므로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다.

03 국어의 음운 변동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라)에서 '버드나무'는 합성어, '하느님'은 파생어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단어에서 유음화는 일어나지 않고 'ㄹ'이 탈락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분석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의 '물놀이'는 후행하는 'ㄴ'이 'ㄹ'로 바뀌었으므로 순행적 유음화가 적용된 것이고, '권력'은 선행하는 'ㄴ'이 'ㄹ'로 바뀌었으므로 역행적 유음화가 적용된 것이다.

② (나)의 '앓는'과 '훑는'에서 자음군 단순화로 'ㄹ'과 'ㄴ' 사이에서 'ㅎ', 'ㅌ'이 탈락한 후 순행적 유음화가 일어나고 있으므로 적절한 분석이다.

③ (다)에서는 '우는'과 '아니'에서 'ㄴ'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용언의 어간 끝소리인 'ㄹ'이 탈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므로 적절한 분석이다.

⑤ (마)에서는 '공권력'과 '입원료'를 발음할 때 유음화가 아니라 'ㄹ'이 'ㄴ' 뒤에서 'ㄴ'으로 바뀌는 'ㄹ'의 비음화가 일어나고 있으므로 적절한 분석이다.

04 국어의 음운 변동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바꾸어'가 '바꿔'로, '보아서'가 '봐서'로 바뀌는 현상은 단모음 'ㅜ'와 'ㅗ'가 반모음 'w'로 교체되는 현상이다. 따라서 자음과 단모음 'ㅏ/ㅓ' 사이에 반모음 'w'가 첨가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탐구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살피어'에서 '피'의 'ㅣ'가 반모음 'j'로, '이기어라'에서 '기'의 'ㅣ'가 반모음 'j'로 교체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② '져', '쪄', '쳐'가 각각 [저], [쩌], [처]로 발음되며 반모음 'j'가 발음되지 않고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③ '되어'가 [되여]로, '피어'가 [피여]로 발음되기도 하므로 단모음과 단모음 사이에 반모음 'j'가 첨가되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④ '시계'를 [시게]로, '혜택'을 [혜:택]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되므로 '계'와 '혜'에서 반모음 'j'를 발음하지 않는 것이 허용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05 국어의 음운 변동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나)에서 '꽃 한'은 '꽃 한 → 꼳 한 → [꼬탄]'의 과정을 거쳐 발음되고, '숱하다'는 '숱하다 → 숟하다 → [수타다]'의 과정을 거쳐 발음된다. 'ㅎ'이 축약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므로 탈락되어 발음되지 않는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놓고'와 '좋던'은 'ㅎ'의 뒤에 오는 'ㄱ, ㄷ'이 'ㅎ'과 축약되어 [ㅋ], [ㅌ]으로 발음되는 모습을 보이고, '넓히다'와 '앉히다'는 'ㅂ, ㅈ'이 뒤에 오는 'ㅎ'과 축약되어 [ㅍ], [ㅊ]으로 발음되는 모습을 보이므로 적절하다.

③ '놓는'은 '놓는 → 논는 → [논는]', '쌓네'는 '쌓네 → 싼네 → [싼네]'와 같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비음화가 적용되어 'ㅎ'이 [ㄴ]으로 발음되는 모습을 보이므로 적절하다.

④ '많소'와 '낳습니다'에서 'ㅎ' 뒤에 'ㅅ'이 놓일 때에는 'ㅎ'이 발음되지 않고 'ㅅ' 대신 'ㅆ'이 발음되는 양상을 보이므로 적절하다.

⑤ '쌓이다'는 'ㅎ'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접미사가 놓였고, '닳아'는 'ㅎ'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놓였는데 둘 다 'ㅎ'이 탈락되어 발음되지 않으므로 적절하다.

06 국어의 음운 변동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뚫다'는 'ㅎ'과 'ㄷ'이 축약되어 [ㅌ]으로 발음되므로 탈락은 일어나지 않고 축약만이 일어나는 사례에 해당한다. 따라서 탈락이 일어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읊네'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 'ㄹ'이 탈락하고 'ㅍ'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으로 'ㅂ'으로 교체된 후 다시 'ㄴ'의 영향을 받아 비음화되어 [ㅁ]으로 교체되는 변동을 겪는다. 따라서 탈락과 교체가 일어나는 사례에 해당한다.

③ '색연필'은 'ㄴ' 첨가가 일어난 후 비음화가 일어나 [생년필]로 발음된다. 따라서 첨가와 교체가 일어나는 사례에 해당한다.

④ '따뜻하다'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어 'ㅅ'이 'ㄷ'으로 교체된 후 'ㅎ'과 축약되어 [ㅌ]으로 발음된다. 따라서 교체와 축약이 일어나는 사례에 해당한다.

⑤ '급행열차'는 'ㅂ'과 'ㅎ'이 축약되어 [ㅍ]으로 발음되고 'ㅇ'과 'ㅕ' 사이에 'ㄴ'이 첨가되어 [녈차]로 발음된다. 따라서 축약과 첨가가 일어나는 사례에 해당한다.

» 2부 적용 학습

언어 01 음운 ❶

본문 | 50~53쪽

01 ③ 02 ④ 03 ⑤ 04 ③ 05 ④

01 음운의 체계와 변동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밥물'은 [밤물]로 소리 나는 말로, 자음을 발음할 때 둘째 음절 초성에 있는 비음 'ㅁ'의 영향으로 앞 음절의 종성에 있는 'ㅂ'이 해당 조음 위치(입술)의 비음으로 바뀌어 소리 난다. 모음의 경우 첫음절은 평순 모음, 둘째 음절은 원순 모음으로 발음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난로'는 [날:로]로 소리 나는 말로, 자음을 발음할 때 둘째 음절 초성에 있는 유음 'ㄹ'의 영향으로 첫음절의 종성 'ㄴ'이 유음으로 바뀌어 소리 난다. 모음의 경우 첫음절은 평순 모음으로 발음하고 둘째 음절은 원순 모음으로 발음한다.

② '국민'은 [궁민]으로 소리 나는 말로, 자음을 발음할 때 둘째 음절 초성에 있는 비음 'ㅁ'의 영향으로 앞 음절의 종성에 있는 'ㄱ'이 해당 조음 위치(여린입천장)의 비음으로 바뀌어 소리 난다. 모음의 경우 첫음절은 원순 모음으로 발음하고 둘째 음절은 평순 모음으로 발음한다.

④ '만능'은 [만:능]으로 소리 나는 말로, 자음을 발음할 때 각각 제 음가대로 소리 난다. 모음의 경우 첫음절과 둘째 음절은 모두 평순 모음으로 발음한다.

⑤ '꽃눈'은 [꼰눈]으로 소리 나는 말로, 자음을 발음할 때 첫음절의 종성이 [ㄷ]으로 바뀐 후에 둘째 음절 초성에 있는 비음 'ㄴ'의 영향을 받아 해당 조음 위치(잇몸)의 비음으로 바뀌어 소리 난다. 모음의 경우 첫음절과 둘째 음절은 모두 원순 모음으로 발음한다.

02 최소 대립쌍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우리'의 '우'는 모음 단독으로 발음되므로, 첫음절의 'ㅇ'은 음가가 없다. 따라서 '우리'의 'ㅇ'은 '뿌리'의 'ㅃ'과 최소 대립쌍을 이루지 않는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볼', '불', '발'은 중성의 모음 'ㅗ', 'ㅜ', 'ㅏ'의 차이로 인해 각기 다른 뜻을 지닌 단어로 구별되므로 'ㅗ', 'ㅜ', 'ㅏ'는 각기 다른 음운이라고 볼 수 있다.

② '불'과 '풀'은 초성의 자음 'ㅂ'과 'ㅍ'의 차이로 인해 각기 다른 뜻을 지닌 단어로 구별되므로 'ㅂ'과 'ㅍ'은 각기 다른 음운이라고 볼 수 있다.

③ '강'과 '감'은 종성의 자음 'ㅇ'과 'ㅁ'의 차이로 인해 각기 다른 뜻을 지닌 단어로 구별되므로 'ㅇ'과 'ㅁ'은 각기 다른 음운이라고 볼 수 있다.

⑤ '국위'와 '국어'는 모두 둘째 음절 중성의 모음 'ㅟ'와 'ㅓ'의 차이로 인해 각기 다른 뜻을 지닌 단어로 구별되므로 'ㅟ'와 'ㅓ'는 각기 다른 음운이라고 볼 수 있다.

03 국어의 음운 변동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잠가[잠가]'는 어간 '잠그–'에서 끝음절의 모음 'ㅡ'가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 '–아'와 만나 탈락한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머니[머:니]'는 '멀다'의 어간 '멀–'의 'ㄹ'이 'ㄴ'으로 시작되는 어미 '–니'와 만나 탈락한 것이다.

② '까맣지[까:마치]'는 어간 '까맣–'에서 끝음절 받침에 있는 'ㅎ'이 'ㅈ'으로 시작되는 어미 '–지'와 만나 거센소리로 축약된 것이다.

③ '가서[가서]'는 어간 '가–'의 모음 'ㅏ'가 동일한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 '–아서'와 만나 동일 모음 중 하나가 탈락한 것이다.

④ '않고[안코]'는 어간 '않–'의 받침 중 'ㅎ'이 'ㄱ'과 만나 거센소리로 축약된 것이다.

04 국어의 음운 변동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된소리되기라는 두 개의 음운 변동이 일어났고, 이 두 변동은 모두 교체에 해당한다. 그런데 '놓고[노코]'는 'ㅎ'과 예사소리가 만나 거센소리로 축약되는 음운 변동이 일어난 것이므로 ㉠과 동일한 유형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 예로 볼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된소리되기라는 두 개의 음운 변동이 일어났으며 이 두 변동은 모두 교체에 해당한다.
② ㉡에는 겹받침 중 하나가 탈락하는 자음군 단순화와 'ㄴ'이 'ㄹ' 뒤에서 'ㄹ'로 바뀌는 유음화가 일어났다. 따라서 탈락과 교체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일어났다.
④ '핥는[할른]'은 '훑는[훌른]'과 마찬가지로 자음군 단순화와 유음화가 일어난 예이다. 따라서 ㉡과 동일한 유형의 음운 변동인 탈락과 교체가 일어났다.
⑤ 국어의 음절 종성에서는 최대 하나의 자음만 발음되며 그 하나의 자음도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가지로 제한된다. 이러한 종성의 발음 제약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것이 ㉠의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의 자음군 단순화이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7가지 자음에 속하지 않는 자음을 'ㄱ, ㄷ, ㅂ' 중 하나로 바꾸며, 자음군 단순화는 겹받침 중 하나를 탈락시킨다.

05 국어의 음운 변동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는 앞 단어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의 첫음절이 '이'인 합성어에 'ㄴ' 음을 첨가한 것이므로 ㉣만 적용된 것이다. ㉡은 적용되지 않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는 '밭'의 받침 'ㅌ'과 형식 형태소인 조사 '이랑'의 모음 'ㅣ'가 만나 음운 변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 적용된 것이다.
② ⓑ는 '논'의 홑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 '이랑'과 만난 것으로, ㉡이 적용된 것이다.
③ ⓒ는 실질 형태소인 '밭'과 실질 형태소인 '이랑'이 만나 음운 변동이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밭'의 받침 'ㅌ'이 대표음 [ㄷ]으로 소리 나는 ㉠, 앞 단어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의 첫음절이 '이'인 합성어이므로 'ㄴ' 음이 첨가된 ㉣, 받침 'ㄷ(ㅌ)'이 'ㄴ, ㅁ' 앞에서 [ㄴ]으로 발음되는 ㉢이 적용된 것이다.
⑤ ⓔ는 '꽃'의 홑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 '이랑'과 만난 것으로, ㉡이 적용된 것이다.

언어 02 음운 ❷

본문 | 54~56쪽

01 ④	02 ④	03 ⑤	04 ②	05 ②

01 국어의 음운 변동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닫히다'에서는 거센소리되기(축약)와 구개음화(교체)가 일어나고, '흙화덕'에서는 자음군 단순화(탈락)와 거센소리되기(축약)가 일어난다. '닫히다', '흙화덕' 모두 예사소리가 'ㅎ'을 만나 거센소리로 축약되는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음절의 끝에서 발음되는 자음은 'ㄱ, ㄴ, ㄷ, ㄹ, ㅁ, ㅂ, ㅇ' 뿐이다. 나머지 자음이 음절의 끝에 오면 이 일곱 자음 중의 하나로 바뀌어 발음되는데, 이를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 한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는 단어는 '겉모양'이다.
② '겉모양'에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비음화가 일어난다. 교체가 일어나지만, 음절 끝의 자음이 그다음 음절의 자음과 동일하게 바뀌는 음운 변동은 일어나지 않는다.
③ '겉모양'에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비음화가 일어나므로 음운 변동이 한 번만 일어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닫히다'에서는 거센소리되기와 구개음화가 일어나고, '흙화덕'에서는 자음군 단순화와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므로 음운 변동이 세 번 일어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⑤ '닫히다'에서는 거센소리되기와 구개음화로 인해 음운 변동 후 전체 음운의 개수가 한 개 줄어든다. 그리고 '흙화덕'에서는 자음군 단순화, 거센소리되기로 인해 음운 변동 후 전체 음운의 개수가 두 개 줄어든다. 하지만 '겉모양'에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비음화가 일어난다. 이때 음운 변동 전후의 음운의 개수에는 변함이 없다.

02 국어의 음운 변동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역행 동화, 완전 동화가 일어나는 단어를 찾아야 한다. '잡무[잠무]'는 동화음 'ㅁ'이 피동화음 'ㅂ'보다 뒤에 있고(역행 동화), 피동화음 'ㅂ'이 동화음 'ㅁ'과 같아지게 된다(완전 동화). 또한 '진리[질리]' 역시 동화음 'ㄹ'이 피동화음 'ㄴ'보다 뒤에 있고(역행 동화), 피동화음 'ㄴ'이 동화음 'ㄹ'과 같아지게 된다(완전 동화).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달님[달림]'은 순행 동화, 완전 동화가 일어나는 단어이고, '국물[궁물]'은 역행 동화, 부분 동화가 일어나는 단어이다.
② '달님[달림]'은 순행 동화, 완전 동화가 일어나는 단어이고, '잡무[잠무]'는 역행 동화, 완전 동화가 일어나는 단어이다.
③ '국물[궁물]'은 역행 동화, 부분 동화가 일어나는 단어이고, '칼날[칼랄]'은 순행 동화, 완전 동화가 일어나는 단어이다.
⑤ '진리[질리]'는 역행 동화, 완전 동화가 일어나는 단어이고, '칼날[칼랄]'은 순행 동화, 완전 동화가 일어나는 단어이다.

03 국어의 음운 변동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있다[읻따]'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된소리되기가 일어나는 단어이다. 특히 음절의 끝에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ㅆ'이 'ㄷ'으로 바뀌는 교체가 일어난다. 음절의 끝에서 탈락은 일어나지 않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담다[담:따]'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나는 단어이다. 음절의 끝에서 교체나 탈락이 모두 일어나지 않는다.
② '없다[업:따]'는 자음군 단순화, 된소리되기가 일어나는 단어이다. 음절의 끝에서 자음군 단순화로 인한 'ㅅ' 탈락만 일어난다.
③ '옳다[옴:따]'는 자음군 단순화, 된소리되기가 일어나는 단어이다. 음절의 끝에서 자음군 단순화로 인한 'ㄹ' 탈락만 일어난다.
④ '같다[갇따]'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된소리되기가 일어나는 단어이다. 음절의 끝에서 'ㅌ'이 'ㄷ'으로 바뀌는 교체만 일어난다.

04 국어의 음운 변동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 '국민[궁민]'은 비음화에 의해 파열음 'ㄱ'이 비음 'ㅇ'으로 교체된다. 'ㄱ', 'ㅇ'은 연구개음으로 음운 변동 후 조음 위치가 바뀌지 않지만, 조음 방법은 바뀜을 알 수 있다.
㉢ '굳이[구지]'는 구개음화에 의해 파열음 'ㄷ'이 파찰음 'ㅈ'으로 교체된다. 'ㄷ'은 치조음, 'ㅈ'은 경구개음으로, 음운 변동 후 조음 위치가 바뀌는 것은 물론 조음 방법도 바뀜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논밭[논받]'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파열음 'ㅌ'이 파열음 'ㄷ'으로 교체된다. 'ㅌ', 'ㄷ'은 치조음으로 음운 변동 후 조음 위치가 바뀌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실내[실래]'는 유음화에 의해 비음 'ㄴ'이 유음 'ㄹ'로 교체된다. 'ㄴ', 'ㄹ'은 치조음으로 음운 변동 후 조음 위치가 바뀌지 않지만, 조음 방법은 바뀜을 알 수 있다.

05 국어의 음운 변동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국밥[국빱]'은 'ㄱ' 뒤에서 'ㅂ'이 'ㅃ'으로 바뀌었으므로 ㉠의 예가 맞다. '담자[담:짜]'는 비음인 'ㅁ'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 '담-' 뒤에서 어미의 'ㅈ'이 'ㅉ'으로 바뀌었으므로 ㉡의 예가 맞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법만[법만]'은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의 예가 될 수 없고, '담자[담:짜]'는 ㉡의 예가 맞다.
③ '국밥[국빱]'은 ㉠의 예가 맞지만, '안방[안빵]'은 '안'이 용언 어간이 아니므로 ㉡의 예가 아니다.
④ '맏형[마텽]'은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의 예가 될 수 없고, '안방[안빵]'은 '안'이 용언 어간이 아니므로 ㉡의 예가 아니다.
⑤ '맏형[마텽]'은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의 예가 될 수 없고, '숨고[숨:꼬]'는 비음인 'ㅁ'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 '숨-' 뒤에서 어미의 'ㄱ'이 'ㄲ'으로 바뀌었으므로 ㉡의 예가 맞다.

언어 03 단어 ❶

본문 | 57~61쪽

01 ③ 02 ② 03 ③ 04 ② 05 ③

01 형태소의 종류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크-', '기쁘-', '주-'는 의존 형태소(㉯)이면서 실질 형태소(㉮)이지만, '-었-'은 의존 형태소(㉯)이면서 형식 형태소(㉰)에 해당한다.

언어 01

본문 218~220쪽

01 ② 02 ④ 03 ② 04 ④ 05 ③

01 국어의 자음 체계 답 ②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ㄱ'이 'ㄴ' 앞에서 'ㅇ'으로 바뀌는 변동이 일어났다. 'ㄱ'이 'ㅇ'으로 바뀔 때, 조음 위치는 '연구개음'으로 동일하며 조음 방법은 '파열음'에서 '비음'으로 바뀐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ㄷ'이 'ㅣ' 앞에서 'ㅈ'으로 바뀌는 변동이 일어났다. 'ㄷ'이 'ㅈ'으로 바뀔 때, 조음 위치는 '치조음'에서 '경구개음'으로 바뀌며 조음 방법은 '파열음'에서 '파찰음'으로 바뀐다.

③ 'ㄹ'이 받침 'ㅇ' 뒤에서 'ㄴ'으로 바뀌는 변동이 일어났다. 'ㄹ'이 'ㄴ'으로 바뀔 때, 조음 위치는 '치조음'으로 동일하며 조음 방법은 '유음'에서 '비음'으로 바뀐다.

④ 'ㅂ'이 'ㅁ' 앞에서 'ㅁ'으로 바뀌는 변동이 일어났다. 'ㅂ'이 'ㅁ'으로 바뀔 때, 조음 위치는 '양순음'으로 동일하며 조음 방법은 '파열음'에서 '비음'으로 바뀐다.

⑤ 'ㄴ'이 'ㄹ' 뒤에서 'ㄹ'로 바뀌는 변동이 일어났다. 'ㄴ'이 'ㄹ'로 바뀔 때, 조음 위치는 '치조음'으로 동일하며 조음 방법은 '비음'에서 '유음'으로 바뀐다.

02 국어의 음운 변동 답 ④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첫해[처태]'에서는 '첫'의 'ㅅ'이 'ㄷ'으로 교체되고, 'ㄷ'과 '해'의 'ㅎ'이 합쳐져 'ㅌ'으로 축약되므로, 옳은 설명이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않은[아는]'에서 탈락은 '않'의 'ㅎ'이 없어지는 변동으로, 한 번만 일어난다.

② '꽃망울[꼰망울]'에서 교체는 '꽃'의 'ㅊ'이 'ㄷ'으로 바뀌는 변동과 'ㄷ'이 'ㅁ' 앞에서 'ㄴ'으로 바뀌는 변동으로, 두 번 일어난다.

③ '식용유[시굥뉴]'에서 첨가는 '유'에 'ㄴ'이 덧붙는 변동으로, 한 번만 일어난다.

⑤ '얇다[얄:따]'에서 교체는 'ㄷ'이 'ㄸ'으로 바뀌는 변동이고, 탈락은 'ㄺ'에서 'ㅂ'이 없어지는 변동으로, 각각 한 번씩 일어난다. 첨가는 일어나지 않는다.

03 국어의 음운 변동 답 ②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음절 말 평파열음화), ㉡은 비음화, ㉢은 경음화, ㉣은 자음군 단순화, ㉤은 'ㄴ' 첨가를 설명한 것이다.

ⓐ에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ㅌ'→'ㄷ')과 비음화('ㄷ'→'ㄴ')가 일어난다.

ⓑ에서는 경음화('ㄷ'→'ㄸ')와 자음군 단순화('ㄺ'→'ㄱ')가 일어난다.

ⓒ에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ㅆ'→'ㄷ')과 경음화('ㅈ'→'ㅉ')가 일어난다.

ⓓ에서는 'ㄴ' 첨가(없음→'ㄴ')와 비음화('ㄱ'→'ㅇ')가 일어난다.

따라서 ㉡이 일어나는 예는 ⓐ와 ⓓ이다.

04 국어의 음운 변동 답 ④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담그-+-아 → 담가[담가]'에서는 어간 '담그-'의 모음 'ㅡ'가 어미의 모음 'ㅏ' 앞에서 탈락한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기-+-어 → 기어[기여]'에서는 어미의 단모음 'ㅓ'에 반모음 'j'가 첨가되어 이중 모음 'ㅕ'가 되었다. 참고로, 반모음 'j'를 첨가하지 않고 '기어'를 [기어]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며 둘 모두 표준 발음이다.

② '피-+-어서 → 펴서[펴:서]'에서는 어간 '피-'의 단모음 'ㅣ'가 반모음 'j'로 교체되어 어미 '-어서'의 첫 단모음 'ㅓ'와 함께 이중 모음 'ㅕ'를 이룬다.

③ '가-+-아라 → 가라[가라]'에서는 어간 '가-'의 모음 'ㅏ'와 어미 '-아라'의 첫 모음 'ㅏ'가 동일하여 한 모음이 탈락한다.

⑤ '치우-+-어라 → 치워라[치워라]'에서는 어간 '치우-'의 단모음 'ㅜ'가 반모음 'w'로 교체되어 어미 '-어라'의 첫 단모음 'ㅓ'와 함께 이중 모음 'ㅝ'를 이룬다.

05 국어의 음운 변동 답 ③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닫히다'에서 '-히-'는 접미사이므로, ㉡에 따라 '다티다 → [다치다]'가 된다. 여기서 'ㅌ'의 'ㅌ'은 'ㄷ'과 'ㅎ'이 축약된 것이므로, 탈락되는 자음은 없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홑이불'을 '호치불'로 발음하지 않는 것은 '이불'이 실질 형태소이므로 ㉠의 '조사나 접미사의 모음 'ㅣ''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이다.

② '같이'에서 어근 '같-'에 결합한 '-이'는 부사를 만드는 접미사

이므로, ㉠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구개음화가 일어나 [가치]가 된다.
④ '신기다'에는 사동 접미사 '-기-'가 결합하여 있기 때문에, ㉢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흔히 나타나는 [신끼다]는 표준 발음이 아니다.
⑤ '담고'의 어간 '담-' 뒤에 온 '-고'는 어미이며 첫소리가 'ㄱ'이므로 ㉢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경음화된다.

언어 02

본문 221~223쪽

01 ② 02 ② 03 ② 04 ③ 05 ④

01 국어의 모음 체계 답 ②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 'ㅗ'는 '후설 모음, 중모음, 원순 모음'이고, 'ㅡ'는 '후설 모음, 고모음, 평순 모음'이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 'ㅣ'는 '전설 모음, 고모음, 평순 모음'이고, 'ㅓ'는 '후설 모음, 중모음, 평순 모음'이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 'ㅖ'는 '전설 모음, 중모음, 평순 모음'이고, 'ㅟ'는 '전설 모음, 고모음, 원순 모음'이므로, 혀의 높낮이에 대한 설명과 입술 모양에 대한 설명 모두가 적절하지 않다.
㉣ 'ㅜ'는 '후설 모음, 고모음, 원순 모음'이고, 'ㅚ'는 '전설 모음, 중모음, 원순 모음'이므로, 혀의 위치에 대한 설명은 적절하지만 혀의 높낮이에 대한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2 국어의 음운 변동 답 ②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끝말[끈말]'에서는 음운의 개수에 변화가 없는 변동('ㅌ' → 'ㄷ', 'ㄷ' → 'ㄴ')이 일어난다. 음운의 개수가 늘어나는 변동은 일어나지 않는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닿아서[다아서]'에서는 음운의 개수가 줄어드는 변동('ㅎ' → 없음)이 일어난다.
③ '곱다라니[곱:따라니]'에서는 음운의 개수에 변화가 없는 변동('ㄷ' → 'ㄸ')이 일어난다.
④ '없는[엄:는]'에서는 음운의 개수가 줄어드는 변동('ㅄ' → 'ㅂ')과 음운의 개수에 변화가 없는 변동('ㅂ' → 'ㅁ')이 일어난다.
⑤ '들일[들:릴]'에서는 음운의 개수가 늘어나는 변동(없음 → 'ㄴ')과 음운의 개수에 변화가 없는 변동('ㄴ' → 'ㄹ')이 일어난다.

03 국어의 음운 변동 답 ②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어간 '많-'에 어미 '-고'가 결합할 때 격음화가 일어났다('ㅎ' + 'ㄱ' → 'ㅋ'). 따라서 ㉠의 예이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어근 '앉-'의 품사가 동사이며 접미사 '-히-'와 결합할 때 격음화가 일어났다('ㅈ' + 'ㅎ' → 'ㅊ'). 따라서 ㉡의 예이다.
③ 어간 '빻-'에 어미 '-는'이 결합하여 격음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이때는 'ㅎ'이 'ㄷ'으로 바뀐 후 'ㄴ'이 된다. 따라서 ㉢의 예이다.
④ 어간 '좋-'에 어미 '-던'이 결합할 때 격음화가 일어났다('ㅎ' + 'ㄷ' → 'ㅌ'). 따라서 ㉠의 예이다.
⑤ 어근 '넓-'의 품사가 형용사이며 접미사 '-히-'와 결합할 때 격음화가 일어났다('ㅂ' + 'ㅎ' → 'ㅍ'). 따라서 ㉡의 예이다.

04 국어의 음운 변동 답 ③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은 '빌-'의 'ㄹ'이 '-니' 앞에서 탈락하였으므로 적절하다. ㉡은 'ㄹ' 뒤의 'ㄴ'이 'ㄹ'로 바뀐 것이므로 적절하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 음절 말에서 'ㄺ'의 'ㄹ'이 탈락한 것은 자음군 단순화로 인한 현상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ㄹ' 뒤의 'ㄴ'이 'ㄹ'로 바뀌었으므로 적절하다.
② ㉠: '울-'의 'ㄹ'이 '-니' 앞에서 탈락하였으므로 적절하다. ㉡: 'ㄹ' 앞의 'ㄴ'이 'ㄹ'로 바뀐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 '살-'의 'ㄹ'이 '-네' 앞에서 탈락하였으므로 적절하다. ㉡: 'ㄹ' 앞의 'ㄴ'이 'ㄹ'로 바뀐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 음절 말에서 'ㄵ'의 'ㄹ'이 탈락한 것은 자음군 단순화로 인한 현상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ㄹ' 앞의 'ㄴ'이 'ㄹ'로 바뀐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05 국어의 음운 변동 답 ④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사-'와 '-아서'에 동일한 모음이 있어서 하나가 탈락하였으며, 표기에 반영되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뜨-'의 'ㅡ'가 '-어' 앞에서 탈락하였으며, 표기에 반영되었다.

② '쏘-'의 'ㅗ'가 반모음 'w'로 교체되고 뒤의 'ㅏ'와 함께 이중 모음 'ㅘ'가 되었으며, 표기에 반영되었다.
③ '-어'에 반모음 'j'가 첨가되어 'ㅕ'가 되었으며, 표기에 반영되지 않았다.
⑤ '기다리-'에서 '리'의 'ㅣ'가 반모음 'j'로 교체되고 뒤의 'ㅣ'와 함께 이중 모음 'ㅕ'가 되었으며, 표기에 반영되었다.

언어 03

본문 224~227쪽

01 ③ 02 ② 03 ② 04 ② 05 ③

01 단어의 구성 요소 답 ③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깨끗-', '-하-', '-게'는 모두 형태소이다. 또한 어근 '깨끗-'에 접미사 '-하-'가 결합된 '깨끗하다'는 하나의 단어이다. '깨끗하-'는 다양한 어미와 결합하여 활용할 수 있는데, 각각의 활용형들 역시 하나의 단어이다. 따라서 '깨끗하-'에 어미 '-게'가 결합한 활용형 '깨끗하게' 역시 하나의 단어이다.

02 용언 답 ②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아파서'는 어간 '아프-'에 어말 어미인 연결 어미 '-아서'가 결합된 형태이다. 따라서 어말에 오지 못하는 어미, 즉 선어말 어미가 '아파서'에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샀다'는 어간 '사-'에 선어말 어미 '-았-'과 어말 어미인 종결 어미 '-다'가 결합된 형태이다. 따라서 선어말 어미와 어말 어미가 '샀다'에 모두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③ '되어라'는 어간 '되-'에 어말 어미인 종결 어미 '-어라'가 결합된 형태이다. 따라서 문장을 끝내는 어미, 즉 종결 어미가 '되어라'에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④ '하고'는 어간 '하-'에 어말 어미인 연결 어미 '-고'가 결합된 형태이다. 따라서 문장과 문장을 이어 주는 기능을 하는 어미, 즉 연결 어미가 '하고'에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⑤ '피는'은 어간 '피-'에 전성 어미인 관형사형 어미 '-는'이 결합된 형태이다. 따라서 용언을 관형사와 같은 기능을 하게 하는 어미, 즉 관형사형 어미가 '피는'에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03 합성어의 형성 답 ②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합성 부사인 '잘못'은 부사 '잘'과 '못'이 결합한 단어이고, '또다시' 역시 부사 '또'와 '다시'가 결합한 합성 부사이다. 따라서 '잘못'과 '또다시'는 모두 부사와 부사가 결합한 합성 부사 유형이다. 합성 부사 '한바탕'은 관형사 '한'과 명사 '바탕'이 결합한 단어이고 '이른바'는 동사의 관형사형 '이른'에 명사 '바'가 결합된 구성이므로 '한바탕'과 '이른바'는 관형사 혹은 관형사형이 명사와 결합한 합성 부사 유형이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이것저것'은 대명사 '이것'과 '저것'이 결합한 합성 명사이므로 부사와 부사가 결합한 합성 부사 유형이 아니다. 또한 '골고루'는 부사 '고루'가 중복하여 결합한 '고루고루'의 준말이므로 관형사 혹은 관형사형이 명사와 결합한 합성 부사 유형이 아니다. '어느새'는 관형사와 명사가 결합한 합성 부사이다.
③ 합성 부사 '죄다'는 부사 '죄'와 '다'가 결합한 단어이므로 부사와 부사가 결합한 합성 부사 유형이다. 그러나 '오랫동안'은 부사 '오래'와 명사 '동안'이 결합한 합성 명사이다.
④ '오늘날'은 명사 혹은 부사 '오늘'과 명사 '날'이 결합한 합성 명사이고 '이것저것'은 대명사끼리 결합한 합성 명사 유형이므로 '오늘날'과 '이것저것'은 모두 부사와 부사가 결합한 합성 부사 유형이 아니다. '이른바'와 '어느새'는 관형사 혹은 관형사형이 명사와 결합한 합성 부사 유형이다.
⑤ '오늘날'은 부사와 부사가 결합한 합성 부사 유형이 아니다. '오랫동안'은 부사 '오래'와 명사 '동안'이 결합한 합성 명사이다.

04 단어의 의미 관계 답 ②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의 '틈'은 '벌어져 사이가 난 자리'라는 공간적 개념의 의미를 나타내고, ㉡의 '틈'은 '어떤 행동을 할 만한 기회'라는 시간적 개념의 의미를 나타낸다. 따라서 ㉠, ㉡은 한 단어가 공간적 개념의 의미와 시간적 개념의 의미를 각각 나타내는 예문의 짝으로 적절하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의 '뒤'와 ㉡의 '뒤' 모두 '향하고 있는 방향과 반대되는 쪽이나 곳'이라는 공간적 개념을 나타내므로 ㉠, ㉡은 한 단어가 공간적 개념의 의미와 시간적 개념의 의미를 각각 나타내는 예문의 짝으로 적절하지 않다.
③ ㉠의 '위'는 '어떤 기준보다 더 높은 쪽'이라는 공간적 개념의 의미를 나타내지만, ㉡의 '위'는 '신분, 지위 따위에서 어떠한 것보다 더 높거나 나은 쪽'을 나타내므로 시간적 개념의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다. 따라서 ㉠, ㉡은 한 단어가 공간적 개념의 의미와 시

문법 01

본문 202~204쪽

01 ③ 02 ② 03 ③ 04 ⑤ 05 ②

01 음운 변동의 유형 파악 답 ③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나)에 제시된 자료들은 공통적으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비음화라는 두 가지 음운 변동이 적용되었다. '놓는, 앞만, 꺾는'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어 '논는, 압만, 꺽는'이 되고 여기에 비음화가 적용되어 [논는], [암만], [껑는]이 되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비음화는 모두 한 자음을 다른 자음으로 바꾸어 주므로 교체에 속한다. 따라서 (나)는 교체에 속하는 음운 변동이 두 가지 적용되었다고 해야 한다.

02 단모음 변화의 성격 이해 답 ②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나)의 ㉠은 'ㅡ'가 'ㅜ'로 바뀌는 변화이다. 이것을 (가)의 단모음 체계에 비추어 보면 혀의 높낮이나 앞뒤는 변화가 없이 입술 모양이 평순 모음에서 원순 모음으로 바뀌었다. (나)의 ㉡은 'ㅗ'가 'ㅜ'로 바뀌는 변화이다. 이것을 (가)에 비추어 보면 혀의 앞뒤나 입술 모양은 그대로이되 혀의 높낮이만 중모음에서 고모음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②가 정답이다.

03 연음과 관련된 현실 발음 이해 답 ③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밭을'의 경우 '밭' 뒤에 오는 형태소 '을'은 형식 형태소인 조사이므로 연음되는 것이 올바르다. 따라서 '밭을'의 올바른 발음은 '[바츨]'이 아니라 '[바틀]'이라고 해야 한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닭이'는 '닭' 뒤에 오는 형태소 '이'가 형식 형태소인 조사이므로 연음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올바른 탐구 결과이다.

② '꽃에'는 '꽃' 뒤에 오는 형태소 '에'가 형식 형태소인 조사이므로 연음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올바른 탐구 결과이다.

④ '부엌에'는 '부엌' 뒤에 오는 형태소 '에'가 형식 형태소인 조사이므로 연음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올바른 탐구 결과이다.

⑤ '여덟이'는 '여덟' 뒤에 오는 형태소 '이'가 형식 형태소인 조사이므로 연음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올바른 탐구 결과이다.

04 연음의 예외에 대한 이해 답 ⑤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의 '훑이다'는 '훑–' 뒤에 형식 형태소인 접사 '–이–'가 결합하므로 연음이 되어야 하지만 구개음화가 적용되어 '[홀치다]'로 발음된다. 따라서 연음의 예외에 속한다. ㉡의 '끓어'는 '끓–' 뒤에 형식 형태소인 어미 '–어'가 결합하므로 연음이 되어야 하지만 'ㅎ'이 탈락하여 '[끄러]'로 발음된다. 따라서 연음의 예외에 속한다. ㉢의 '값어치'는 '값' 뒤에 형식 형태소인 접사 '–어치'가 결합하므로 연음이 되어야 하지만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되어 '[가버치]'로 발음된다. 따라서 연음의 예외에 속한다. 결국 ㉠, ㉡, ㉢은 모두 연음이 일어나야 할 조건에서 연음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연음의 예외가 된다.

05 음운 변동의 공통점 찾기 답 ②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의 예들은 모두 'ㄺ'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 뒤에 'ㄴ'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면서 자음군 단순화와 유음화가 적용되었다. ㉡의 예들은 모두 'ㄴ'이 첨가된 후 첨가된 'ㄴ' 앞에서 비음화가 적용되었다. ㉢의 예들은 모두 'ㄴ'이 첨가된 후 'ㄹ' 뒤에서 첨가된 'ㄴ'에 유음화가 적용되었다. ㉠에 적용된 자음군 단순화(탈락)나 ㉡, ㉢에 적용된 첨가는 모두 음운의 개수에 변화를 초래하므로 정답이 된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첨가는 ㉡, ㉢에만 적용되고 ㉠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③ ㉠에 적용된 두 가지 음운 변동은 탈락(자음군 단순화)과 교체(유음화)이므로 동일한 유형이 아니다. ㉡에는 첨가('ㄴ' 첨가)와 교체(비음화)라는 서로 다른 유형의 음운 변동이 적용되었다. ㉢ 역시 첨가('ㄴ' 첨가)와 교체(유음화)라는 서로 다른 유형의 음운 변동이 적용되었다.

④ ㉠, ㉢에 적용된 유음화는 앞선 자음 'ㄹ'이 뒤 자음 'ㄴ'에 영향을 주어 'ㄴ'이 'ㄹ'로 바뀌었으므로 설명에 부합한다. 그러나 ㉡은 오히려 첨가된 'ㄴ'의 영향으로 그 앞의 자음이 바뀌었으므로 잘못된 설명이다.

⑤ ㉠에 적용된 자음군 단순화와 유음화는 음절 끝의 자음을 다른 자음으로 바꾸는 음운 변동이 아니다. ㉢에 적용된 'ㄴ'의 첨가와 유음화 역시 마찬가지이다. ㉡에 적용된 음운 변동 중 비음화만이 음절 끝의 자음을 다른 자음으로 바꿀 뿐이다.

문법 02

본문 205~208쪽

01 ⑤ 02 ③ 03 ③ 04 ③ 05 ③

01 음운의 기능 파악 답 ⑤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먹어'에 실리는 억양이 상승형인지 하강형인지에 따라 '먹어'가 의문형일 수도 있고 평서형일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먹어'가 지니는 단어의 뜻(음식 따위를 섭취하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의문형의 '먹어'나 평서형의 '먹어'는 모두 같은 단어의 활용형일 뿐 서로 다른 단어가 되는 것은 아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글'과 '길'은 오로지 'ㅡ'와 'ㅣ'의 차이에 의해서 그 뜻이 구분되는 단어들이므로 'ㅡ'와 'ㅣ'가 서로 다른 음운임을 보여 주는 예로서 적절하다.

② '발'과 '볼'은 오로지 'ㅏ'와 'ㅗ'의 차이에 의해서 그 뜻이 구분되는 단어들이므로 'ㅏ'와 'ㅗ'가 서로 다른 음운임을 보여 주는 예로서 적절하다.

③ '자다'와 '차다'는 오로지 첫음절의 초성 'ㅈ'과 'ㅊ'의 차이에 의해서 그 뜻이 구분되는 단어들이므로 'ㅈ'과 'ㅊ'이 서로 다른 음운임을 보여 주는 예로서 적절하다.

④ '밤(栗)'과 '밤(夜)'은 오로지 소리의 길이에 의해서 그 뜻이 구분되는 단어들이므로 장단이 음운으로 기능함을 보여 주는 예로서 적절하다.

02 반모음의 성격 파악 답 ③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괘'는 반모음 'ㅜ'와 단모음 'ㅐ'가 결합한 이중 모음이고, 'ㅒ'는 반모음 'ㅣ'와 단모음 'ㅐ'가 결합한 이중 모음이다. 이처럼 '괘'와 'ㅒ'는 단모음이 동일하지만 반모음이 달라서 구별되는 이중 모음이다. 따라서 반모음과 단모음이 모두 다르다고 한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2문단의 설명에 따르면 이중 모음은 반모음과 단모음이 결합하는 구조를 가지므로 두 개의 음운이 포함되어 있다.

② 1문단과 3문단의 설명에 따르면 단모음은 하나의 음절을 이룰 수 있지만 이것이 반모음으로 바뀌면 음절을 이룰 수 없다. 따라서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바뀌면 언제나 음절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④ '다쳐'를 '[다처]'로 발음하는 것은 이중 모음 'ㅕ'에 포함된 반모음 'ㅣ'를 발음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바른 설명이다.

⑤ 'ㅞ'는 반모음 'ㅜ'와 단모음 'ㅔ'가 결합한 이중 모음이고, 'ㅕ'는 반모음 'ㅣ'와 단모음 'ㅓ'가 결합한 이중 모음이다. 이처럼 'ㅞ'와 'ㅕ'는 단모음이 동일하지만 반모음이 달라서 구별되는 이중 모음이므로 올바른 설명이다.

03 반모음과 관련된 음운 변화 찾기 답 ③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은 'ㅸ'이 반모음 'ㅜ'로 바뀌는 음운 변화를 보여 준다. 그래서 '밟'와 '벚'는 각각 '과'와 'ㅞ'로 바뀌었다. ㉡은 'ㅣ'로 끝나는 용언 어간 '기-, 비-' 뒤에 어미 '-어'가 결합하면서 'ㅣ'와 'ㅓ' 사이에 반모음 'ㅣ'가 첨가되었다. 그래서 '기어, 비어'가 각각 '[기여]'와 '[비여]'로 발음되었다. ㉢은 'ㅕ'로 끝나는 용언 어간 '펴-, 켜-' 뒤에 어미 '-어'가 결합하면서 단모음 'ㅓ'가 탈락하였다. 이처럼 ㉠과 ㉡은 변화 전과 비교해 변화의 결과 반모음이 나타나게 되었지만 ㉢은 그렇지 않다.

04 자음 변동의 성격 파악 답 ③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나)의 '진리[질리], 선릉[설릉]'은 뒤에 오는 자음 'ㄹ'의 조음 방법에 앞선 자음이 동화되는 유음화가 적용되었고, '국민[궁민], 밥물[밤물]'은 뒤에 오는 자음 'ㅁ'의 조음 방법에 앞선 자음이 동화되는 비음화가 적용되었다. 따라서 (나)의 음운 변동은 뒤에 오는 자음의 조음 방법에 동화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조음 위치는 바뀌지 않았으므로 잘못된 설명이다.

② '앞에 오는'이 아니고 '뒤에 오는'이라고 해야 하며, 조음 위치가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조음 방법이 동화되는 것이다.

④ '앞에 오는'이 아니고 '뒤에 오는'이라고 해야 한다.

⑤ 조음 위치가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조음 방법이 동화되는 것이다.

05 음운 변동의 공통점 찾기 답 ③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에는 자음군 단순화와 유음화가 적용되었다. ㉡에는 격음화(거센소리되기)가 적용되었다. ㉢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경음화(된소리되기),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되었다. ㉠, ㉢에서는 탈락에 속하는 자음군 단순화로 인해 음운의 수가 줄어들었고, ㉡에서는 'ㅎ'과 평음(예사소리)이 격음(거센소리)으로 축약되는 변동에 의해 음운의 수가 줄어들었다. 따라서 ㉠, ㉡, ㉢에서 공통적으로 음운의 수가 줄어드는 양상을 보인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음운의 탈락은 ㉠, ㉢에서만 나타나고 ㉡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② 첨가는 ㉠, ㉡, ㉢ 중 어디에서도 나타나지 않는다.
④ ㉠에서는 'ㄴ'이 'ㄹ'로 교체되는 변동이, ㉢에서는 'ㅍ'이 'ㅂ'으로 교체되는 변동과 평음(예사소리)이 경음(된소리)으로 교체되는 변동이 나타난다. 그러나 ㉡에서는 교체 대신 축약이 나타난다.
⑤ 축약은 ㉡에서만 나타난다.

문법 03

본문 209~213쪽

01 ④ 02 ③ 03 ② 04 ② 05 ②

01 형태소의 개념과 종류 파악 답 ④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에'는 다른 형태소와 결합하지 않고 단독으로 쓰일 수 없는 의존 형태소이면서 문법적 의미를 갖는 형식 형태소이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에는 '아이', '가', '마당', '에', '앉-', '-아', '있-', '-다' 등 모두 8개의 형태소가 들어간다.
② '아이'는 다른 형태소와 결합하지 않고 단독으로 쓰일 수 있는 자립 형태소이면서 어휘적 의미를 갖는 실질 형태소이다.
③ '앉-'은 다른 형태소와 결합하여야만 쓰일 수 있는 의존 형태소이면서 어휘적 의미를 갖는 실질 형태소이다.
⑤ '-다'는 다른 형태소와 결합하여야만 쓰일 수 있는 의존 형태소이면서 문법적 의미를 갖는 형식 형태소이다.

02 합성 명사의 유형 답 ③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굳은살'은 '용언의 관형사형 + 명사', '산나물'은 '명사 + 명사' 구성의 통사적 합성 명사이다. '접칼'은 '용언의 어간 + 명사', '산들바람'은 '부사 + 명사' 구성의 비통사적 합성 명사이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검버섯'은 '용언의 어간 + 명사' 구성의 비통사적 합성 명사이고 '산나물'은 '명사 + 명사' 구성의 통사적 합성 명사이다.
② '산들바람'은 '부사 + 명사' 구성의 비통사적 합성 명사이다.
④ '검버섯'은 '용언의 어간 + 명사' 구성의 비통사적 합성 명사이고 '굳은살', '늙은이'는 모두 '용언의 관형사형 + 명사' 구성의 통사적 합성 명사이다.
⑤ '새해'는 '관형사 + 명사' 구성의 통사적 합성 명사이다.

03 합성어와 파생어 구분 답 ②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비웃음'의 직접 구성 요소를 '비웃-'과 접미사 '-음'으로 분석하여 '비웃음'을 파생어로 본 것은 올바른 분석이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놀이터'의 직접 구성 요소를 '놀이'와 '터'로 분석한 것은 올바른 분석이나 '놀이터'의 직접 구성 요소에는 접사가 없으므로 '놀이터'는 합성어이다.
③ '눈웃음'은 '눈'과 '웃음'이 결합된 합성어이다. 그런데 직접 구성 요소를 '눈웃-'과 접미사 '-음'으로 잘못 분석하면 파생어로 오인할 수 있다.
④ '코웃음'은 '코'와 '웃음'이 결합된 합성어이다. 그런데 직접 구성 요소를 '코웃-'과 접미사 '-음'으로 잘못 분석하면 파생어로 오인할 수 있다.
⑤ '야채볶음'은 '야채'와 '볶음'이 결합된 합성어이다. 그런데 직접 구성 요소를 '야채볶-'과 접미사 '-음'으로 잘못 분석하면 파생어로 오인할 수 있다.

04 파생 명사와 명사형의 구분 답 ②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은 파생 명사이므로 〈보기 2〉에서 명사를 찾아야 한다. ㉮: 저와 함께 (멋진) 춤을 추시겠어요?'에서 '춤'은 '멋진'과 같은 관형어의 수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명사이다. ㉱: 아무리 (몰려오는) 잠을 쫓으려 해도 눈이 감겼다.'에서 '잠'은 '몰려오는'과 같은 관형어의 수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명사이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 '장군은 호탕하게 크게 웃음으로써 위기를 넘겼다.'에서와 같이 '웃음'은 '호탕하게' 혹은 '크게'와 같은 부사어의 수식을 받으므로 동사이다.
㉲: '동생이 일기에 "그림을 그림."이라고 썼다.'에서 '그림을 (잘) 그림.'과 같이 '그림.'은 부사어의 수식을 받으므로 동사이다.

5강 국어사

본문 225쪽

문제로 이해하기 예시 답안

01 '素那'와 '金川'은 '소나(쇠내/소내/쇠나)'라는 같은 이름을 한자의 음을 빌려 적는 방식, 또는 한자의 뜻을 빌려 적는 방식으로 달리 적은 것이다. '素那'는 '素'의 음인 '소', '那'의 음인 '나'를 이용한 것으로, 한자의 음만 빌려 적은 것이고 이때 한자의 뜻은 고려하지 않는다. '金川'은 '金'의 뜻인 '쇠', '川'의 뜻인 '내'를 이용한 것으로, 한자의 뜻만 빌려 적은 것이고 이때 한자의 음은 고려하지 않는다.

02 중세 국어에서는 목적어나 부사어와 같은 객체를 높이기 위해 '-ᄉᆞᆸ-/-ᄌᆞᆸ-/-ᄉᆞᆸ-' 등과 같은 선어말 어미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현대 국어에서는 선어말 어미가 아닌 '모시다, 드리다' 등의 특수 어휘에 의해 객체 높임을 실현한다.

문법 01

본문 233~236쪽

01 ⑤ 02 ② 03 ④ 04 ② 05 ②

01 음운 변동의 사례 찾기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밥만[밤만]'은 'ㅂ'이 'ㅁ' 앞에서 'ㅁ'으로 바뀌었으므로 ㉠에 속한다. 'ㅋ+어 → 커'는 'ㅡ'가 탈락한 결과이므로 ㉡에 속한다. '닳지[달치]'는 'ㅎ'과 'ㅈ'이 합쳐져 'ㅊ'으로 바뀌었으므로 ㉢에 속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밭이[바치]'는 'ㅌ'이 'ㅣ' 앞에서 'ㅊ'으로 바뀌었으므로 ㉠에 속하는 예가 맞고, 'ㅋ+어 → 커'도 ㉡에 속한다. 그러나 '밥만[밤만]'은 ㉢이 아니라 ㉠에 속하므로 정답이 아니다.

② '쌓고[싸코]'는 'ㅎ'과 'ㄱ'이 합쳐져 'ㅋ'으로 바뀌었으므로 ㉠이 아니라 ㉢에 속한다. '삶도[삼:도]'는 겹받침 중 하나인 'ㄹ'이 탈락했으므로 ㉡에 속한다. '밭이[바치]'는 ㉢이 아니라 ㉠에 속한다.

③ 'ㅋ+어 → 커'는 ㉠이 아니라 ㉡에 속한다. '닳지[달치]'는 ㉡이 아니라 ㉢에 속한다. '삶도[삼:도]'는 ㉢이 아니라 ㉡에 속한다.

④ '삶도[삼:도]'는 ㉠이 아니라 ㉡에 속한다. '닳지[달치]'는 ㉡이 아니라 ㉢에 속한다. '쌓고[싸코]'는 ㉢에 속한다.

02 자음 체계의 이해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ㅃ, ㄸ, ㄲ'은 파열음 중 된소리에 속하지만 발음되는 위치가 모두 다르다. 따라서 잘못된 설명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ㄱ, ㄲ, ㅋ, ㅇ'은 연구개음이므로 '연구개에서 발음되는 소리'에 해당한다.

③ 'ㅈ, ㅊ, ㅉ'은 파찰음이므로 '막았다가 좁은 틈 사이로 마찰을 일으켜 내는 소리'에 해당한다.

④ 'ㅅ, ㅆ, ㅎ'은 마찰음이므로 '좁은 틈 사이로 마찰을 일으키며 내는 소리'에 해당한다.

⑤ 'ㅁ, ㄴ, ㅇ'은 비음이므로 '코로 공기가 흐르면서 나는 소리'에 해당한다.

03 겹받침에 적용되는 음운 변동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옳는[옴:는]'은 겹받침 중 하나인 'ㄹ'이 탈락하기만 했을 뿐 다른 음운 변동은 일어나지 않았다. 따라서 ㉠에 해당하는 사례로 볼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닭만[당만]'은 겹받침 중 하나인 'ㄹ'이 탈락했을 뿐만 아니라 'ㄱ'이 'ㅁ' 앞에서 비음인 'ㅇ'으로 바뀌었으므로 ㉠에 속한다.

② '잃는[일른]'은 겹받침 중 하나인 'ㅎ'이 탈락했을 뿐만 아니라 'ㄹ' 뒤에 있는 'ㄴ'이 'ㄹ'로 바뀌었으므로 ㉠에 속한다.

③ '읊고[읍꼬]'는 겹받침 중 하나인 'ㄹ'이 탈락했을 뿐만 아니라 'ㅍ'이 'ㅂ'으로 바뀌었고 'ㄱ'도 된소리인 'ㄲ'으로 바뀌었으므로 ㉠에 속한다.

⑤ '짧지[짤찌]'는 겹받침 중 하나인 'ㅂ'이 탈락했을 뿐만 아니라 'ㅈ'이 된소리인 'ㅉ'으로 바뀌었으므로 ㉠에 속한다.

04 음운 변동의 유형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않는[안는]'에서는 겹받침 뒤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온다. 그 결과 음절 종성에 자음이 두 개 발음될 수 없다는 국어의 제약이 작용하여 'ㅎ'이 탈락하게 된다. 반면 나머지 선택지에서는 'ㅎ'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문법 형태소가 오면서 'ㅎ'이 탈락하기 때문에 '않는[안는]'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05 음운 변동의 사례 찾기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국사[국싸]'는 'ㄱ' 뒤에서 'ㅅ'이 'ㅆ'으로 바뀌었으므로 ㉠의 예가 맞다. '담자[담:짜]'는 비음인 'ㅁ'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 '담-' 뒤에서 어미의 'ㅈ'이 'ㅉ'으로 바뀌었으므로 ㉡의 예가 맞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법치'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의 예가 될 수 없고 '담자[담:짜]'는 ㉡의 예가 맞다.

③ '국사[국싸]'는 ㉠의 예가 맞지만 '안방[안빵]'은 '안'이 용언 어간이 아니므로 ㉡의 예가 아니다. '안방[안빵]'의 된소리되기는 사잇소리 현상에 의한 것이다.

④ '받형[마텽]'은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의 예가 될 수 없고, 안방[안빵]'은 '안'이 용언 어간이 아니므로 ㉡의 예가 아니다.

⑤ '받형[마텽]'은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의 예가 될 수 없고, '숨고[숨:꼬]'는 비음인 'ㅁ'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 '숨-' 뒤에서 어미의 'ㄱ'이 'ㄲ'으로 바뀌었으므로 ㉡의 예가 맞다.

문법 02

본문 237~240쪽

01 ③ 02 ② 03 ⑤ 04 ④ 05 ①

01 음운 변동의 성격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된소리되기라는 두 개의 음운 변동이 적용되었다. 그런데 '놓고[노코]'는 'ㅎ'과 예사소리가 거센소리로 축약되는 음운 변동이 적용되었으므로 ㉠과 동일한 음운 변동이 적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된소리되기라는 두 개의 음운 변동이 적용되었으며 이 두 변동은 모두 교체에 속한다.

② ㉡은 겹받침 중 하나가 탈락하는 자음군 단순화와 'ㄴ'이 'ㄹ' 뒤에서 'ㄹ'로 바뀌는 자음 동화가 적용되었다. 따라서 교체(자음 동화)와 탈락이 적용된 것이 맞다.

④ '핥는[할른]'은 '훑는[훌른]'과 마찬가지로 자음군 단순화와 자음 동화가 적용되었다.

⑤ 국어의 음절 종성에서는 최대 하나의 자음만 발음되며 그 하나의 자음도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가지로 제한된다. 이러한 종성의 발음 제약을 위해 적용되는 것이 ㉠의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의 '자음군 단순화'이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7가지 자음에 속하지 않는 자음을 'ㅂ, ㄷ, ㄱ' 중 하나로 바꾸며, 자음군 단순화는 겹받침 중 하나를 탈락시킨다.

02 음운 변동의 성격 파악 및 사례 찾기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쏘+아 → [쏴:]'는 단모음 'ㅗ'가 반모음 'w'로 바뀌면서 후행하는 모음 'ㅏ'와 결합하여 이중 모음 'ㅘ'로 바뀐 경우이다. 음절의 수는 하나 줄었지만 음운의 탈락이나 축약 없이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교체되었을 뿐이므로 ㉠에 속하는 사례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아이'가 '애[애:]'로 변한 것은 두 개의 단모음 'ㅏ'와 'ㅣ'가 제삼의 단모음인 'ㅐ'로 축약된 결과이므로 ㉠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쓰+어서 → [써서]'는 단모음 'ㅡ'가 탈락한 경우이므로 ㉠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깨+어서 → [깨:서]'는 단모음 'ㅓ'가 탈락한 경우이므로 ㉠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가+아서 → [가서]'는 단모음 'ㅏ'가 탈락한 경우이므로 ㉠에 해당하지 않는다.

03 음운 체계를 통한 음운 변동의 성격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나)에 제시된 'ㅣ' 역행 동화 현상의 예들을 보면 후설 모음인 'ㅏ'가 전설 모음인 'ㅐ'로 바뀌고 있다. 'ㅏ'와 'ㅐ'의 특성을 (가)에서 비교해 보면 혀의 전후 위치를 제외한 나머지 특성은 동일하므로 'ㅏ'가 'ㅐ'로 바뀐 것은 후설 모음이 전설 모음으로 바뀌었다고 보아야 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ㅏ'와 'ㅐ'는 모두 저모음이므로 잘못된 설명이다.

② 'ㅏ'와 'ㅐ'는 모두 저모음이므로 잘못된 설명이다.

③ 'ㅏ'와 'ㅐ'는 모두 평순 모음이므로 잘못된 설명이다.

④ 'ㅏ'는 후설 모음이고, 'ㅐ'는 전설 모음이므로 잘못된 설명이다.

04 음운 변동의 유형 구분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여'는 반모음 'j'와 단모음 '어'로 이루어진 이중 모음이다. 따라서 '피어'가 [피여]로 발음되는 것은 반모음 'j'가 첨가되어 음운의 수가 늘어난 경우이므로 잘못된 설명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앞일'을 [암닐]로 발음하는 데에는 'ㄴ' 첨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ㅍ'이 'ㅂ'으로 변동), 비음화('ㅂ'이 'ㅁ'으로 변동)와 같은 음운 변동이 관여하고 있다. 'ㄴ' 첨가는 첨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비음화는 교체에 해당하므로 올바른 설명이다.

② '넓고'를 [널꼬]로 발음하는 데에는 교체에 속하는 된소리되기와 탈락에 속하는 자음군 단순화가 관여하고 있다. 그러므로 올바른 설명이다.

③ '끓고'를 [끌코]로 발음하는 데에는 'ㅎ'과 'ㄱ'이 'ㅋ'으로 축약

되는 변동이 관여하고 있다. 그러므로 올바른 설명이다.
⑤ '숲만'을 [숨만]으로 발음하는 데에는 음절 종성의 'ㅍ'을 'ㅂ'으로 발음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및 비음화가 관여하고 있으며, 이 둘은 모두 교체에 속하므로 올바른 설명이다.

05 사잇소리 현상의 특성 파악 답 ①

정 답이 정답인 **이유**
① '오곡밥'에서 '오곡'은 '밥'의 재료(오곡으로 지은 밥)가 된다. 본문에 나오는 '시간, 장소, 용도, 기원'과 무관한데도 된소리되기가 적용되었다. '오곡밥'에서 된소리되기가 일어난 것은 '밥' 앞에 오는 말이 '오곡'과 같이 'ㄱ'으로 끝났기 때문이다. 'ㄱ' 뒤에서는 예외 없이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따라서 '오곡밥'은 ⓐ에 들어갈 수 없는 예이다.

오 답이 오답인 **이유**
② '봄바람'의 표준 발음은 [봄빠람]이며, '봄'과 '바람'은 시간(봄에 부는 바람)의 의미 관계를 맺으므로 ⓐ에 들어갈 수 있다.
③ '꿀단지'의 표준 발음은 [꿀딴지]이며, '꿀'과 '단지'는 용도(꿀을 넣는 단지)의 의미 관계를 맺으므로 ⓐ에 들어갈 수 있다.
④ '밀가루'의 표준 발음은 [밀까루]이며, '밀'과 '가루'는 기원(밀에서 나온 가루)의 의미 관계를 맺으므로 ⓐ에 들어갈 수 있다.
⑤ '산돼지'의 표준 발음은 [산뙈지]이며, '산'과 '돼지'는 장소(산에 사는 돼지)의 의미 관계를 맺으므로 ⓐ에 들어갈 수 있다.

문법 03

본문 241~245쪽

01 ⑤ 02 ⑤ 03 ⑤ 04 ② 05 ③

01 단어 구성 요소인 어근과 접사 구별하기 답 ⑤

정 답이 정답인 **이유**
⑤ '끈기 있게 철썩 붙다.'는 뜻을 지닌 '들붙다'는 비통사적 합성어로, '들붙은'의 '들–'은 어근이다. '들끓었다'의 '들–'은 '무리하게 힘을 들여', '마구', '몹시'의 뜻을 더하는 접사이다.

오 답이 오답인 **이유**
① '새까맣게'의 '새–'는 '매우 짙고 선명하게'의 뜻을 더하는 접사이고, '새사람'의 '새'는 관형사 어근이다.
② '짓누르는'의 '짓–'과 '짓이겨서'의 '짓–'은 '마구', '함부로', '몹시'의 뜻을 더하는 접사이다.
③ '맴돌았다'의 '돌–'과 '휘돌다가'의 '돌–'은 어근이다.
④ '막살아서야'의 '막–'은 '주저 없이', '함부로'의 뜻을 더하는 접사이고, '막혀서'의 '막–'은 어근이다.

02 접두사의 다양한 의미 이해하기 답 ⑤

정 답이 정답인 **이유**
⑤ '외삼촌'의 아내를 '외숙모'라고 하는데, 이 두 말에는 '모계 혈족 관계인'이라는 의미의 접두사 '외(外)–'가 쓰였다. '밖'이나 '바깥'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가 쓰인 예로는 '외배엽', '외분비', '외출혈' 등이 있다.

오 답이 오답인 **이유**
① '안주 없이 마시는 술'을 이르는 말인 '강술'에는 '다른 것이 섞이지 않고 그것만으로 이루어진'이라는 의미의 접두사 '강–'이 쓰였다.
② '마른기침'을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인 '강기침'에는 '마른' 또는 '물기가 없는'이라는 의미의 접두사 '강–'이 쓰였다.
③ 야구에서 타격이 강한 타자를 이르는 말인 '강타자'에는 '매우 센' 또는 '호된'이라는 의미의 접두사 '강(强)–'이 쓰였다.
④ '오직 한 갈래'라는 뜻을 지닌 '외갈래'에는 '혼자인' 또는 '하나인' 또는 '한쪽에 치우친'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외–'가 쓰였다.

03 용언에서 명령형 어미와 청유형 어미의 바른 쓰임 이해하기 답 ⑤

정 답이 정답인 **이유**
⑤ '놀라워라'에는 명령형 어미가 아니라 감탄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가 쓰였으므로 '놀라워라'는 적절한 표현이다. 따라서 '놀라워져라'로 고쳐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 답이 오답인 **이유**
① '기쁘다'는 형용사이므로 청유형 어미와 결합하는 게 부적절하다. 따라서 '기뻐하자'로 고쳐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
② '새롭다'는 형용사이므로 청유형 어미와 결합하는 게 부적절하다. 따라서 '새로워지자'로 고쳐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
③ '아름답다'는 형용사이므로 청유형 어미와 결합하는 게 부적절하다. 따라서 '아름다워지자'로 고쳐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
④ '예쁘다'는 형용사이므로 명령형 어미와 결합하는 게 부적절하다. 따라서 '예뻐져라'로 고쳐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

04 'ㅎ' 규칙 용언과 'ㅎ' 불규칙 용언의 활용형 이해하기 답 ②

정 답이 정답인 **이유**
② '조그맣–'에 '–으니'가 결합하면 'ㅎ'이 탈락하고 '으'도 탈락하여 '조그마니'라고 활용해야 한다.

오 답이 오답인 **이유**
① '그렇–'에 '–으니'가 결합하면 'ㅎ'이 탈락하고 '으'도 탈락하여 '그러니'라고 활용된다.
③ '커다랗–'에 '–아서'가 결합하면 'ㅎ'이 탈락하고 '–아서'가 '–애서'로 나타나서 '커다래서'라고 활용된다.